

YANOLJA RESEARCH BRIEF

2025년 대한민국 인바운드 관광 수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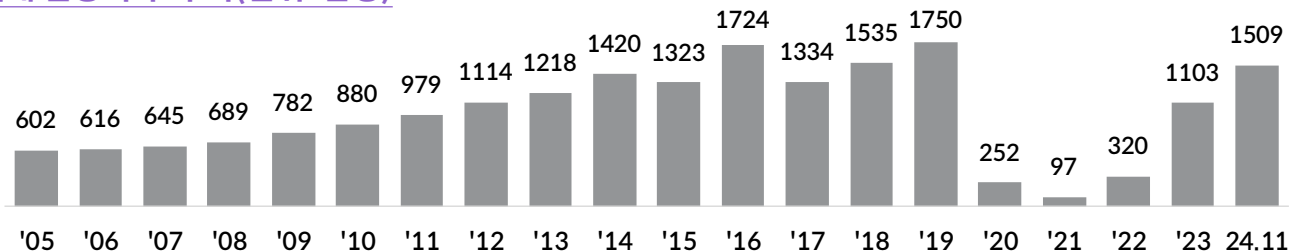
2025년 대한민국 인바운드 관광 수요 예측

인바운드 관광은 경제 성장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브리프에서는 과거 인바운드 관광 수요 패턴을 바탕으로 아놀자리서치가 개발한 AI 예측 모델을 통해 2025년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국가별 수요 예측을 병행하여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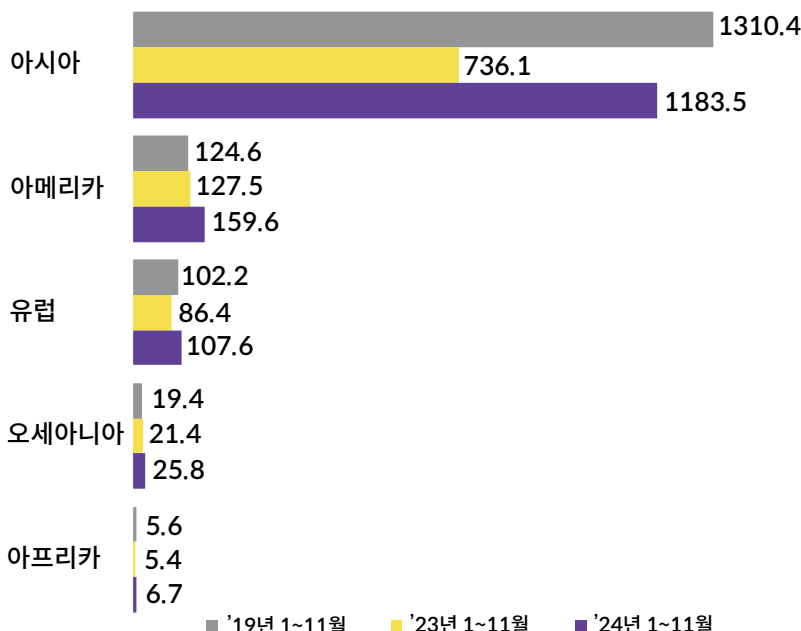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인바운드 관광, 대륙별·국가별 수요 급격 회복 양상

- 2025년 인바운드 관광 수요 예측에 앞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는 15,098,766명으로, 외래 관광객 수가 가장 많았던 2019년 대비 94.1%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1.1% 증가한 수치로, 팬데믹 이후 인바운드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 수요는 2005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1,75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252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2021년에는 97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점차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는 여전히 한국 인바운드 관광의 핵심 시장이다. 2024년 11월까지 아시아에서 방한한 관광객은 1,183만 명으로, 2019년(1,310만 명)의 90.3%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159.6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2019년 대비 28.1%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지역 방문객 수는 107.6만 명으로, 2019년(102.2만 명) 대비 5.3% 증가했다. 오세아니아에서의 방한 관광객은 25.8만 명으로 2019년보다 33.0% 증가하여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방한 관광객이 6.7만 명으로 여전히 소규모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 한편, 국가별로는 회복 속도와 성장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중국(-22.1%)과 일본(-1.4%)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난 반면, 미국(+26.6%), 대만(+15.8%), 싱가포르(+53.9%)는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프랑스(+49.0%), 독일(+31.9%)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몽골(+25.0%), 인도(+24.8%) 등 아시아 신흥 시장에서의 방문객 증가는 향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래 관광객 수 추이(단위: 만명)



대륙별 방한 외래 관광객 수 추이(단위: 만명)



'24년 외래 관광객 방문 상위 2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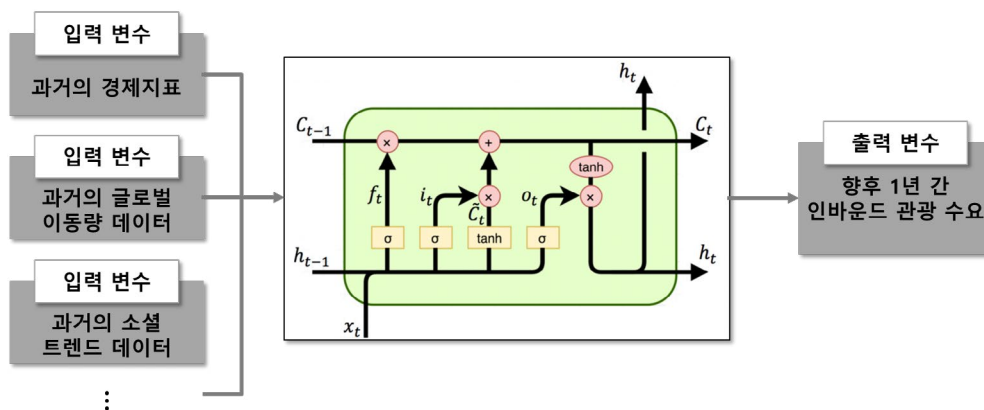
	'19년 1~11월	'23년 1~11월	'24년 1~11월
중국	551.4	176.6	429.6 (-22.1%)
일본	301.6	212.1	297.4 (-1.4%)
대만	117.0	88.0	135.5 (+15.8%)
미국	96.7	100.8	122.4 (+26.6%)
홍콩	62.3	36.1	51.3 (-17.7%)
베트남	52.3	38.9	47.5 (-9.2%)
필리핀	46.1	30.8	46.7 (-1.3%)
인도네시아	24.9	22.3	30.2 (+21.3%)
싱가포르	20.4	29.1	31.4 (+53.9%)
태국	51.6	34.6	29.1 (-43.6%)
말레이시아	35.1	22.7	26.9 (-23.4%)
캐나다	19.0	18.7	23.8 (+25.3%)
호주	15.4	17.6	21.8 (+41.6%)
러시아	31.6	14.7	18.5 (-41.5%)
인도	13.3	11.4	16.6 (+24.8%)
프랑스	10.4	12.6	15.5 (+49.0%)
독일	11.3	12.6	14.9 (+31.9%)
영국	13.5	11.4	13.9 (+3.0%)
몽골	10.4	12.4	13.0 (+25.0%)
미얀마	6.7	5.1	7.0 (+4.45%)

단위: 만명, 괄호 안의 수치는 2019년 대비 성장률

AI 기반 LSTM 모델을 활용한 한국 인바운드 관광 수요 예측

- 아놀자리서치는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글로벌 이동량, 경제 지표, 소셜 트렌드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인바운드 관광 수요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가진 LSTM(Long Short-Term Memory) 모델을 사용하였다.
- 분석에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요 변수인 GDP 성장률, 환율, 소비자심리지수 등의 경제 지표를 비롯해 글로벌 이동량, 한국 관광 관련 키워드 검색량, 소셜 미디어 언급 빈도 등 다양한 소셜 트렌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 변수로 설정하고, 향후 1년간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를 출력 변수로 설정하여 LSTM 모델을 학습시켰다. 추가적으로,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주요 방한 국가를 대상으로도 예측을 수행하여 국가별 관광 수요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 개발된 예측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였다. 2023년 10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예측한 결과, 전체 예측값은 1,608만 명, 실제값은 1,588만 명으로 약 19만 명(약 1.3%)의 오차를 기록하였다. 이는 모델이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요 국가별 예측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오차율을 기록하며, 모델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인바운드 관광 수요 예측 모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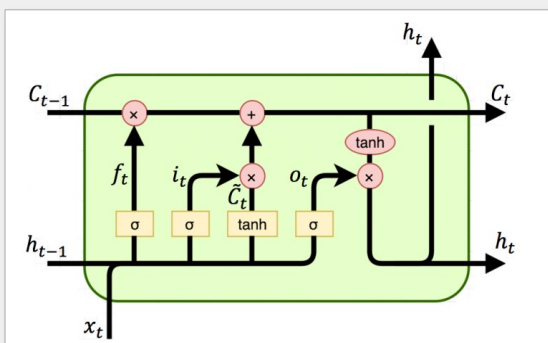


예측 모델의 성능평가 결과

예측값	실제값
1608만명	1588만명
1.3% 오차	

Long Short-Term Memory (LSTM)의 구조와 장점

- LSTM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효과적인 인공지능 모델로, 순환신경망의 일종이다. 이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잊는 메커니즘을 통해 장기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LSTM을 활용하여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 인바운드 관광 수요 데이터의 계절적 변화와 주기성을 반영한 정교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
 - 셀과 게이트 구조를 활용하여 과거 데이터의 장기적 영향과 최신 데이터를 동시에 반영함으로써,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입력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하여,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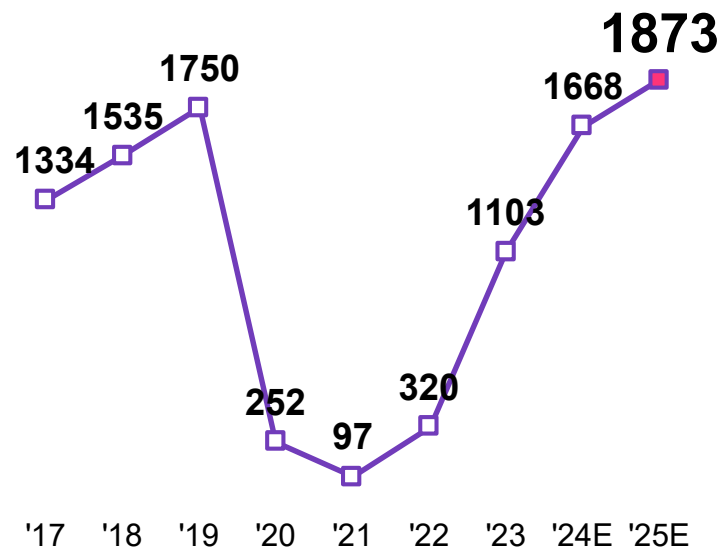


$$\begin{aligned}
 f_t &= \sigma(W_{xh_f}x_t + W_{hh_f}h_{t-1} + b_{h_f}) \\
 i_t &= \sigma(W_{xh_i}x_t + W_{hh_i}h_{t-1} + b_{h_i}) \\
 o_t &= \sigma(W_{xh_o}x_t + W_{hh_o}h_{t-1} + b_{h_o}) \\
 \tilde{C}_t &= \tanh(W_{xh_g}x_t + W_{hh_g}h_{t-1} + b_{h_g}) \\
 C_t &= f_t \otimes C_{t-1} \oplus i_t \otimes \tilde{C}_t \\
 h_t &= o_t \otimes \tanh(C_t)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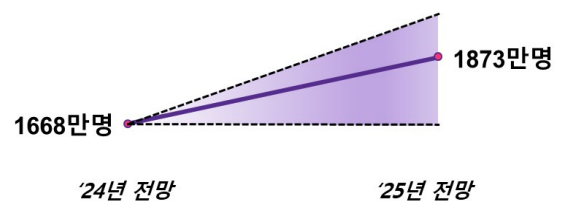
2025년 한국 인바운드 수요 1,873만 명,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폭 커

- 앞서 설명한 야놀자리서치가 개발한 LSTM 모델을 적용한 결과, 2025년에는 약 1,873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7% 증가한 수치이다.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인바운드 관광 수요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이러한 예측에 변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우선,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특히, 2024년 12월 초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은 외래 관광객들에게 안전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인바운드 관광객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주요 방한 국가인 중국의 경제 둔화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관광객 유입국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중국인의 해외여행 소비 여력이 크게 감소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2025년 인바운드 관광 수요는 예측한 수치를 벗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정적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관광 수요는 2024년 수준에 머물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K-컬처의 세계적 유행이 지속되는 등 긍정적 요인들이 강화된다면, 2025년에 2,000만 명 이상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이다.

2025년 인바운드 관광 수요 예측 결과(단위: 만명)



시나리오별 '25년 인바운드 관광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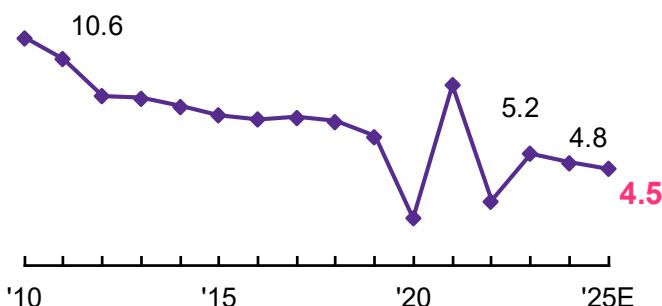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의 효과가 작고, 긍정 요인이 작용하면 2000만명 이상 방문 가능”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24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하락 가능”

경제적 요인의 불확실성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단위: %)



정치적 요인의 불확실성

한국 비상계엄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한국 여행 자제 권고



미국 국무부, 미국 대사관

“시위와 교통 차질이 예상되니 대중 집회 장소는 피하고,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것”



일본 대사관

- 한국 거주 시민들에게 주의 권고
-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향후 발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



영국정부

- 한국 정치 긴장에 대한 여행 경고
-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삼각지), 국회의사당(여의도) 주변 대규모 시위 예상. 현지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대규모 공공집회를 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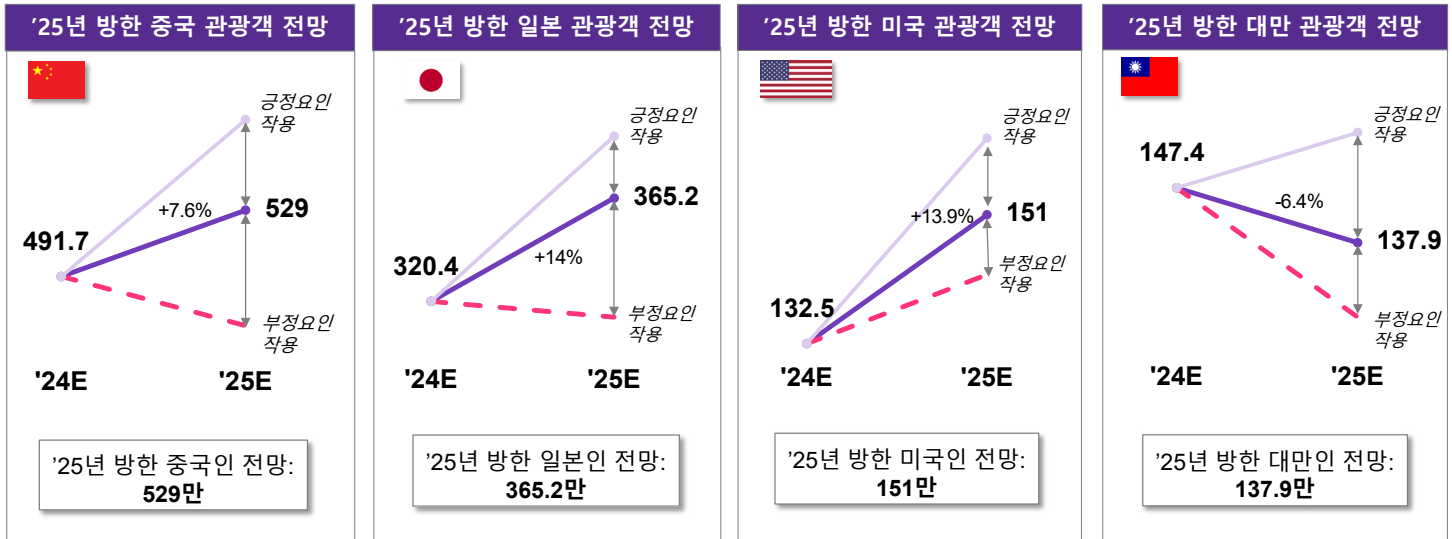


싱가포르 대사관

- 정치적 행사 참여 자제 권고
-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현지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을 권고”

중국, 일본, 미국, 대만이 2025년 인바운드 관광 수요의 63% 차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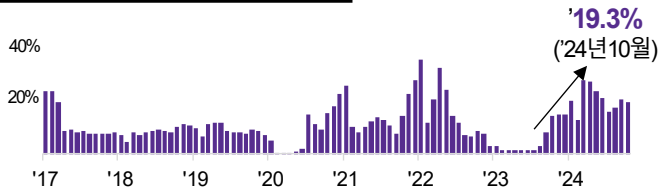
· 주요 국가별로 예측해 본 결과, 2025년 주요 4개국(중국, 일본, 미국, 대만)의 관광객 수요는 중국(529만 명), 일본(365만 명), 미국(151만 명), 대만(137.9만 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4개국이 전체 외래 관광객 수의 약 6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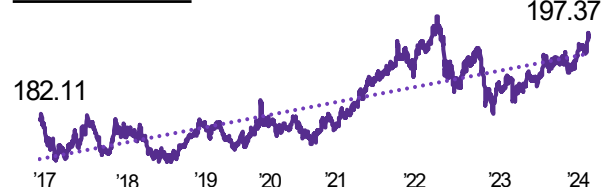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529만 예상

- 2025년 예상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529만 명으로, 전체 인바운드 관광 수요의 약 2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방한 외래 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중국이 여전히 주요 시장임을 보여준다. 중국인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항구 입국자 비율, SNS 상 한국 관광 관심도, 환율, 그리고 중국 경제 상황이다.
- 중국인 관광객의 항구 입국 비율은 2024년 1월 7.7%에서 10월 23%로 상승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중국 SNS에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25년 수요 안정성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또한, 위안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은 한국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정부의 무비자 입국 검토 역시 관광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 반면, 중국의 경제 저성장은 해외여행 수요를 억제할 위험 요인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되며, 대중 정책 불확실성과 수출 악화 등이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 관광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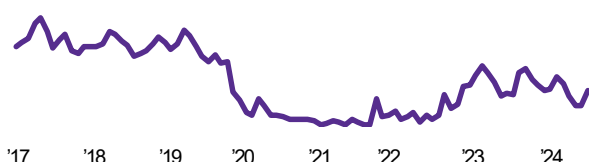
중국인 관광객 항구 입국자 비율 추이



위안·원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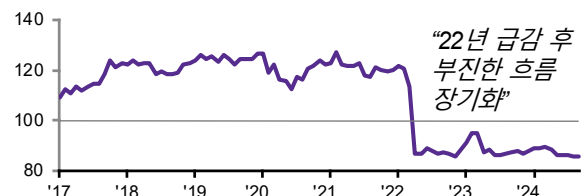


한국관광 관련 중국 SNS 관심도* 트렌드



*중국 검색량 기반의 한국관광 검색량 지표 야놀자리서치 자체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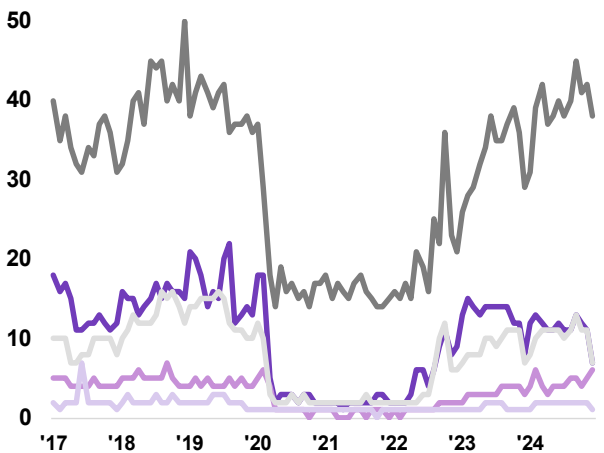
중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일본 인바운드 관광객, 365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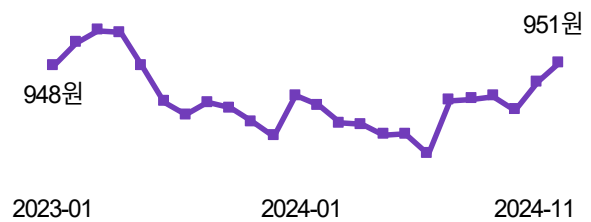
- 2025년 일본인 관광객 수는 약 365만 명으로, 2024년 예상치(320만 명) 대비 약 14%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변수는 SNS 관심도, 엔·원 환율, 실질실효환율이다.
- 일본 SNS에서 한국 관광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증가하며, 2025년 방한 수요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엔·원 환율이 900원대를 회복하고 안정화되었다. 2025년 추가 금리 인상 예고는 엔화 약세를 완화시켜 환전 부담을 줄이며 방한 수요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 반면, 실질실효환율 하락은 일본인의 소비력을 약화시키며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 선호를 높일 수 있다. 이는 한국 방한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관광 관련 일본 SNS 관심도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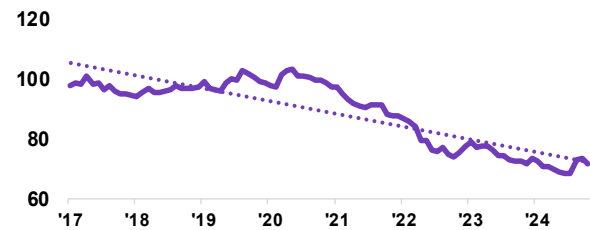


*일본인 검색량 기반의 한국관광 검색량 지표 아놀자리서치 자체 집계
*국내 정치 이슈로 '24년 12월 데이터는 보정치 활용함

엔·원 환율 추이 (최근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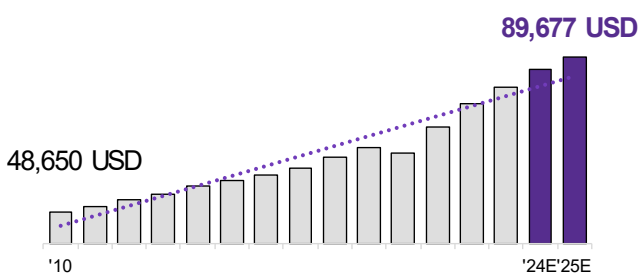
일본 실질실효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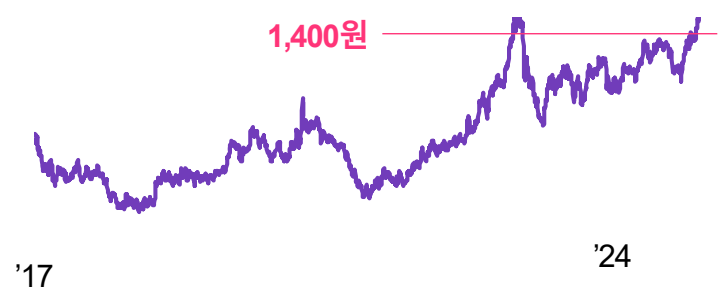
미국 인바운드 관광객, 151만 예상

- 2025년 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51만 명으로, 올해 예상치인 132만 명에서 약 13.9%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변수는 미국 경제 전망, 달러·원 환율, 그리고 SNS 상 한국 관광 관심도다.
- 미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IMF는 2025년 1인당 GDP를 약 89,677달러로 예측했다. 이는 미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로 1,400원대 환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인들에게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은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등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방한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 1인당 GDP 추이 (2010-2024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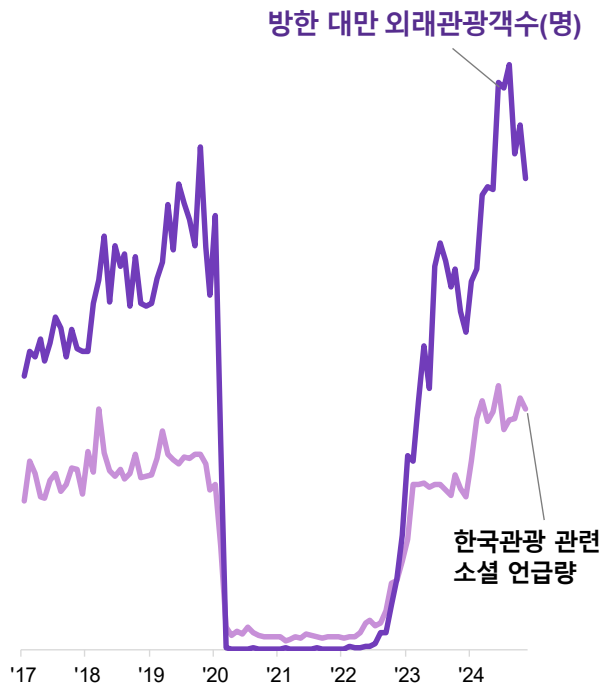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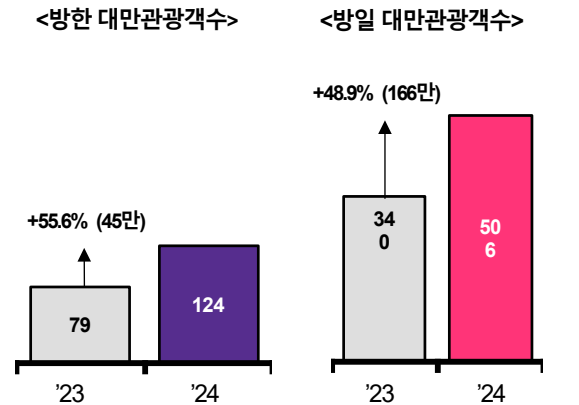
대만 인바운드 관광객, 138만 예상

- 2025년 대만인 관광객 수는 약 138만 명으로 예상되며, 최대 157만 명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변수는 SNS 관심도, 경제성장, 비수도권 방한 비율, 방일 관광객 추이 등이다.
- 대만 SNS에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방한 대만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55.6% 증가해 방일 증가율(48.9%)을 상회했다. 이는 2025년 방한 수요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 대만은 안정적 경제 성장(3.29%)과 가처분 소득 증가로 해외여행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원화 하락(-3.4%)은 일본 엔화 하락(-1.8%)보다 커, 한국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비수도권 방한 비율은 2024년 42%로 상승하며 다양화된 항공·배편과 정치적 안정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무안공항 사고로 일부 노선에 차질이 예상된다.
- 2025년 대만의 장기 연휴는 6회로, 2024년보다 늘어나 방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여기에 K-ETA 면제 연장 검토는 긍정적 영향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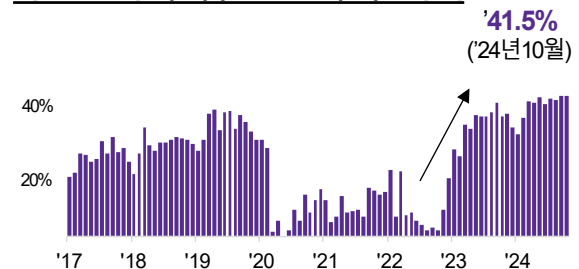
대만 SNS 트렌드와 방한 관광객 수 추이



대만 관광객 방한/방일 추이



대만인 관광객 비수도권 입국 비율 추이



요약하면, 야놀자리서치는 AI기반 LSTM 모델을 활용하여 2025년 한국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약 1,873만 명으로 예측하였으며, 외부 변수에 따라 이 수요는 유의미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본 브리프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야놀자리서치 홍석원 수석연구원(suckwon.hong@yanolja.com) 또는 서대철 선임연구원(deachul.seo@yanolja.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yanolja research

Disclaimer : 본 보고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야놀자의 입장이나 사업전략을 반영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야놀자리서치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하는 것은 금지되며, 동의 없이 본 보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야놀자리서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